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주소: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7 월 21 일(다해)

연중 제 16 주일(농민 주일)

[입당송]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 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 름 찬송하리이다.

[제 1 독서] 창세 18,1-10 ㄴ

[화답송] 시편 15(14),2-3 ㄱ.3 ㄴㄷ-4 ㄱㄴ.5(◎ 1 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 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 라. ◎

[제 2 독서] 콜로 1,24-28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38-42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	510, 512	158, 165	439

미사전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7 월 21 일	**연중 제 16 주일**	윤성숙	정캐롤	김혜영	정지상, 김혜영	박민지, 김민주	정지상 가정
7 월 28 일	**연중 제 17 주일**	김진숙	조정원	윤성숙	조정원, 윤성숙	김태현, 한 빈	조정원 가정
8 월 4 일	**연중 제 18 주일**	박 건	임성윤	송유준	송유준, 송민우, 송소영	김혜원, 김세현	송창훈 가정
8 월 11 일	**연중 제 19 주일**	공정임	송정섭	공정임	송정섭, 공정임	홍성호, 송민우	송정섭 가정

해당일전주 미사후와 해당일 미사 30 분전에 교육있으니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러브 레터

안녕하세요 요셉회 회원 여러분 저는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베드로 신부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신부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써왔습니다. 다소 지루한 감이 있으실 줄은 모르겠으나 신부님의 애정이 깃든 얘기들로 쓰여진 글이니 한번 감상해주시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틀린 오타가 옥에 타처럼 보이면 너그러우심으로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

지난 6/13 일 목요평일 미사때 신부님께서 강론 말씀을 끝으로 이제 6 월 마지막 두주는 과테말라에 선교 가기때문에 목요평일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감을 잡으며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듣는 기분이되어 머리가 착잡한 심정을느꼈습니다. 미사후 우리들은 친교를 나누면서 신부님의 오늘 말씀에 어떤 자매님들은 귀를 의심했던것 처럼 서로에게 묻기도 하시는 모습이 마침 신부님께서 먼가 마지막의 의미로 말씀하신것 같다면서 대화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을해보니 이제 신부님께서 가실때가 오고있구나 하는 느낌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하지 ? 를 생각하니 신부님과 요셉회원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하자 마음이 착찹해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했지만 마음은 자꾸 시려오는듯 설레이기도 하며 지금 우리 시니어 모든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음날 신부님께 여쭈어 7 월 두째주 7/11 일 목요일에 모임을 (목요평일 종강미사)로 하기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2014 년 10 월 4 일에 이곳 놀스 월밍톤에 소재한 IHM 성당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당시 IHM 성당에서 26 년간 역대 신부님들을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동안에 쌓였던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겪으면서 힘들었을때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부임하시고 첫 부임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는데 미사중에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우리 전 신자들을 제대위로 초대해주시면서 첫대면을 환희의 기쁨으로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차서 성전안은 따뜻한 온기속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넣어주신

신부님의 말씀에 기쁨이 성전안에 가득찬듯 아름다웠던 미사를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 푸듯하며 감회가 깊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젊음이 넘치는 이미지에 목소리가 유난히 또렸하시면서 아나운서와 맛먹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이들어 매주 복음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시게겠다는 좋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몸에 뵌분임을 확인해주는듯 미소띤 얼굴이 꽃미남 같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닮은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사랑이 넘치시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어떻게 떠나 보내드려야하나 모두들 힘들어 하고 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사명은 우리들만의것이 아니므로 신부님의 앞날을 축복해드리고 행복을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전하며 굳건하게 사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언젠가 다시 만날수 있다는 의미가 함께 존재하기에 마냥 슬프지만 않을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해 베풀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부임하신후 반년을 보내시며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시고 주님안에서 하나 하나 사목 계획을 세우시며 앞으로의 우리 공동체가 해나가야 활 일들을 생각하시고 끝임없는 기도로 당신의 사목 의지를 가지셨던것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 신자들은 26 년간 IHM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맨 먼저 생각하신것은 우리 성 스테파노 공동체의 새보금자리를 이전하실것을 생각하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형편에 맞는 성전을 주교님께 요청하시고 주교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오늘의 이곳 성당을 찾기되어 St, Paul's Church 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 년 6 월 즈음 공동체 안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다소 있었지만 신부님께서는 공동체에서의 최고 사목자로써 이일을 결심하시고 전 신자들에게 이일을 교회 소식으로 알리기 전까지의 신부님의 고뇌가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힘들으셨으리라 생각이들었습니다. 역대 신부님들도 생각을 못했을 일이였으니까요. 덕분에 우리 전신자들은 IHM 성당에서 만 26 년간 저녁 5 시 미사를 새 성전을 이전으로 끝을 맺게 되었고 신부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에는 전 교우를 위한 생미사로 일일이 교우의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오늘 7월21일 가족전례 및 친교순번은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가정입니다.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2차 헌금:**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 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레지오:** 순교자들의 모후 pr. 레지오팀이 15년 4개월, 800차 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지오 팀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합니다.

■ **평일 미사:** 7월과 8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 7월 28일 6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한세실리아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이상헌 요한 가정,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 김용상 스테파노 가정, 박현걸 요한 가정, 전광식 바오로 가정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헌금: $492.00, 2차헌금: $142.00

교무금: 김치영 1~12월, 임용주 6월, 조원준 7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